행복 법칙 알면 삶 적극적이며 활기차져

행복의 법칙

광덕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2,600여 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듯, 삶의 본질을 꿰뚫는 큰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이미 40여 년 전에 광덕 스님이 설파한 〈행복의 법칙〉 또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 속에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생생히 다가온다. 이 책은 광덕 스님이 1974년부터 월간 〈불광〉에 발표한 글들을 엮었다. 1990년 초판 이후 25년 만에 개정판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4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확실히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인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가슴은 왜 이리도 허허롭고 팍팍하며, 삶은 이토록 고달프기만 한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행복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답을 이 책이 속 시원히 밝혀준다.

광덕 스님은 오로지 우리 안에 깃든 생명의 실상인 불성(佛性)을 강조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행복의 길을 차단하는 번뇌의 근원을 보고, 불법(佛法)의 이치 속에서 행복의 법칙을 찾아냈다. 행복은 행운처럼 요행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법칙에 의해 스스로 창조해가는 것이다. 그 법칙은 불성의 자각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간은 모두 근본 바탕 성품이 불성이다. 우리는 불성의 온갖 공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불성을 빼고 다시 다른 권능자는 없다. 무한 창조의 자재한 위력은 우리의 본성에 본래로 갖추어 있다. '일체유심조' 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들의 마음쓰기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된 삶인가."

행복의 법칙, 그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다. 이미 내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불성, 그 무한가치의 힘을 믿고 있

1974년부터 〈불광〉에 발표한 글 엮어

1990년 초판 이후 25년만의 개정판

행복 창조 원리 설명 및 실천법 제시

는 그대로 갖다 쓰면 그뿐이다. 채널을 KBS에 맞춰야 KBS 방송이 나오고 MBC에 맞춰야 MBC 방송이 나오듯, 마음의 채널을 행복에 맞추면 우리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절대긍정의 인생 법칙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행복의 법칙〉은 깨달음과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고차원적인 사상이 아니다. 어렵고 난해하지도 않다. 바로 우리의 생활현장 속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청정한 마음의 법칙을 활용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가르침이다. 광덕 스님은 은둔 수행을 과감히 박차고, 도심 속 불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간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이다.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현대화 ·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바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의 한글화, 찬불가 작시 및 보급, 경전 번역에 매진했으며, 잠실에 창건한 불광사는 대중법회와 불교교육의 산실로서 현대 도심포교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또한 불광출판사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불서를 매년 수십 종씩 출판하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성장했다. 이처럼 스님의 모든 원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불법을 통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 책의 1장 '행복의 법칙' 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뒤이은 2 · 3 · 4장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 2장 '여성 가정 행복의 장' 에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으며, 3장 '불교인의 생활방식' 에서는 주체적으로 행복을 성취하는 절대긍정의 비결을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4장 '성공자의 자기관리' 에서는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때론 행복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권태롭기도 하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갖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성취해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미 갖춰진 무가보주(無價寶珠,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석)의 불성을 믿고, 절대긍정의 마음만 내어쓰면 된다.

〈행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환희심으로 가득차 그 안에서 행복은 저절로 완성되어질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광덕 스님**(1927~1999)은?
1927년 경기도 화성서 출생했다. 암울한 민족의 격동기였던 1950년대 범어사서 당대의 대선지식인 동산(東山) 스님을 만나 참선을 시작, 위법망구(爲法亡軀)의 구도정신으로 수행정진하였다. 1974년 9월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 한글화, 경전 번역, 찬불가 작시, 불광사 대중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며 대중을 일깨웠다.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대중화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았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이라는 절대긍정의 세계를 열어보인 스님은 1999년 세연을 조용히 거두고 입적했다. 지금까지도 스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저서로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선관책진〉 〈육조단경〉 〈무문관〉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를 비롯해 역저서 20여 종이 있다.

증도가 267구에 붙여 쉽게 설명한 깨달음 노래

깨달음의 노래

심성일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 사천 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법문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다. 조사들과 선사들의 법문과 선문답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모든 법문이 가리키는 것 역시 단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우리가 흔히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몸이며, 생각 · 느낌 · 감정 · 이름 등 그 몸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게 자기를 분리된 개인이라고 믿는 순간, 나와 너가 따로 있고, 나와 세상이 따로 있으며, 안팎의 세상이 무수히 많은 것들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

몸이 죽으면 자기 자신도 죽는다고 믿어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근원적인 불안과 번뇌의 감옥에 갇혀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들은 과연 진실한 것인가?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따로 있고 나 바깥에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무명(無明), 곧 어리석음입니다. …… 나와 세계는 곧 하나의 전체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진리만이, 깨달음만이, 이름하여 불성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모두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지각의 빛이 빚어낸 작용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이 잡다한 현상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눈앞을 벗어난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눈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갖 번뇌에 시달리는 이유는 존재의 실상, 즉 참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이 무지(無知)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무지의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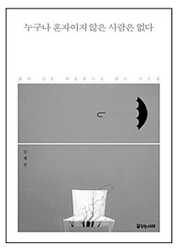
그런데 바른 선지식(善知識)의 지도를 받은 공부인이라면 깨달음은 자기 바깥에서, 혹은 미래에, 혹은 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본성이라는 이름이 알려 주듯이 그것은 본래 늘 있는 것이며, 항상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있는 것이며, 나의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바깥을 보고 있던 눈길을 180도 돌려서 지금 '보는 자' 를,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자기의 진실을 문득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눈앞에 드러난 나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나와 세계가 드러나는 변함없는 바탕이 바로 진정한 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각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헤아려 구하지 마십시오. 헤아릴수록 아득해지고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멈추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영원한 진실을 시종일관 분명하게 가리켜 보인다. 분리된 세계 속 개인이라는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근본적인 번뇌망상에서 문득 해방될 수 있도록, 한글세대인 현대인을 위해 증도가 267구에 붙여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설법했다. 눈앞의 분명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흔한 오해들과 그릇된 인식들도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삶의 깊은 외로움으로 읽는 시선집
독자들이 가장 사랑한 詩 120여 편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지음
꿈꾸는 서재 펴냄
1만 1천원

마음의 상처의 기록이자 상처에 대한 치유의 기록인 이 시집은 김재진 시인이 지난 40년간 발표한 작품 중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시 120편을 가려 엮은 시선집이다. 인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한 좌절과 방황의 시기에 쓰여진 이 시들은 그러나 삶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의 문장 대신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안의 언어로 읽는 이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

시인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던 시간 동안 썼던 시이며, 내 인생을 걸고 썼던 시들' 이라고 토로한 시들을 모았기에 시인의 시집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았던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붙였다. 시인은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와 사랑의 흔적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인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던 시간 동안 썼던 시이며, 내 인생을 걸고 썼던 시들' 이라고 토로하는 고백처럼 이 시선집의 시들은 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좌절과 방황의 시기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의 문장 대신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안의 언어로 읽는 이의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

"말이 전업작가지 실직자일 뿐이던 그 시절, 가진 재주라곤 글 쓰는 일밖에 없었고, 책이 팔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여기 있는 이 시들을 탄생하게 했다." 고 시인은 고백한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제목, 그 문장은 우리 마음의 현을 울리게 하는 감동이 있다. 그것은 아마 인생의 위기 앞에 절실하고 간절했던 시인의 삶이 제목 속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은 시인이 "시집 원고를 읽어가는 동안 적잖이 절창들이 있어 어이쿠 하고 어디다 이마를 찧은 듯한 아픔이 몇 번 있어야 했습니다."라 평한 시인, 책 말미에 덧붙여진 인터뷰서 고형렬 시인으로 하여금 "시단 밖에 있으면서 어느 시인보다 치열하게 사유하고 아파하는 시인, 언제나 현역이고 스스로에게 아웃사이더인 시인."이라 말한 시인 김재진은 신춘문예 시 당선과 함께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지는 벌써 40년이다.

그런 그가 옛 시집을 다시 읽으며 엮은 이번 시선집에는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시〈못〉에서부터 희미하게 스러져가는 노모를 간병하며 쓴 신작시 〈꽃〉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애환과 파란곡절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래서 김재진 시인은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와 사랑의 흔적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쓰는 시가 세상을 위로하는 잔잔한 읊조림이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쓰는 이 문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암호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시가 되길 원한다."고 시인의 말에 적어둔 김재진 시인은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에서 놓여나고, 슬픈 사람들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아픔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혼자가 된다〉 〈벼랑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결례〉 〈마음의 빈집〉 등 수십 년간 쓰고 고치고 읽어온 120여 편의 시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홀로 있음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도반들에게 영혼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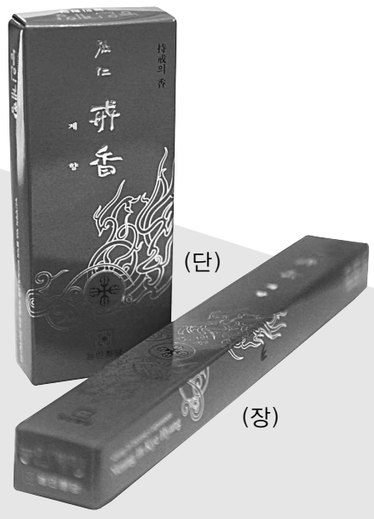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